

‘KTX 사고’ 국회 국토위 “강패집단이야?” 난장판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강릉선 KTX철도사고 등 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실전을 벌이고 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위원장과 소속 여야 의원들간 막말과 고성으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

제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넘기는 듯한 ‘유체이탈식’ 궤변을 늘어냈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홍 의원은 오영식 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책임감 없는 분

한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 · 김현미 장관 불참 ‘질타’

민주-바른미래 “일방적 회의 소집…간사간 합의무”

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사의를 표명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불출석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한 시간 앞두고 오영식 사장이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그러나 사퇴하면서까지 이번 사고의 문

이 철도공사 사장을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냐며 오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위원장은 “오영식 사장이 오고 있는 중이어서 약 4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김현미 장관도 오늘 세종시 국무회의에서 철도사고 문제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어 오후 2시 반에 도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 소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원장님께서 한국당의 의견만 받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회의는 해야 하지만 간사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합진규 한국당 의원은 “간사간 합의가 그렇게 중요한지, 국민적 관심은 관계 없는 것인지 저는 몹시 쓸쓸한 생각이 든다”며 “지금 윤 간사만 나오고 여당 위원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 합의를 하면 그 분들이 나올 거냐”고 역풍했다.

국토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해훈 의원은 회의 개최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오늘 회의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으로부터도, 두 간사로부터도 일침 들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만 얘기하면 되는 거냐.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패시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일방적 소집에 대해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하겠다. 지난 8일부터 여야 간사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혐의가 됐느냐, 서로 핑퐁만 치고 되지도 않았다”며 회의의 강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박 위원장은 “이해훈 의원, 지금 뭐하는 거냐 시간부터 지켜라. 시간도 맞춰주지 않으면서 무슨 뒷말이 많냐”고 비난했고, 장내는 회의 강행을 둘러싼 여야 고성으로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독선적이다”, “완장을 차고 있다”며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자 격앙된 박 위원장은 “아니 무슨 추태를 부리고 있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기가 강패집단이야?”, “일방적이라니, 독선적이야!”, “완장? 어디서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등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른쪽 한국당 의원이 “지금 여기서 소리질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나가서 간사간 합의를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서면서 장내는 가까스로 정리됐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백봉신사상 영광의 얼굴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우원식, 박용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북한, 文정부에 화 많이 나…연내 답방 물 건너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답답…결단력 없다고 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 만났는데 거기서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가 난 이유와 관련해 “9·19 평양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더 설득해가지고 제재 완화되니까 북미 관계의 정상화 등 남북 관계도 국제 제재 관계가 좀 강화되는 걸로 인식했다

보다”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 없느냐 등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서 (북한이) 아주 대접이 극진하지 않았느냐, 뭔가 조금 이제 보답이 올 때도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제가 ‘지금 국제 관계는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해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측에서는 남측이 조금 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 미국을 설득하고 남북 경험도

좀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UN 안보리 제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돌출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 가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해 주면 또 듣는다. 불만, 서운함, 푸대접에 대한 좀 토라진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연내는 물 건너 갔다 고 봐야 한다”면서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초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에 50% (달려갔다)”라며 국제 제재 압박 수위를 높여가다 보면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김정은 답방, 여전히 가능성 있어”

“과거 신변 안전문제로 일정 1~2시간전 공개하기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거론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북한이 많이 일정을 사전통지 해주지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등을 보면 한두시간 전에 일정을 알려줬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가더라도 발표하지 않고 간다.

신변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을 오면서 며칠 전부터 공개할 리는 없다. 그렇기에 저도 오래전부터 미국 동행이나 여러가지로 보면 답방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북한을 위해 답방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측이 북미 고위급회담 관련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김 위원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섭섭할 것”이라며 “어찌됐든 풍계리건 동창리건 폭발을 했다.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인 ICBM에 9·9절에 시설을 없앴다고 한다. 현재 핵을 생산하는 영변만 하더라도 전문가를 초청해 폭파 용의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에서는 경제제재 완화도 안해주는 등 많은 배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연내 아니면 연초라도 (김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 답방을 해야 한다. 그 답방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세계민방에 대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민들에게 비핵화를 선언하듯 김 위원장은 한국에 와서 비핵화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나(김 위원장)도 약속을 지켰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약속을 지켜라”고 해안했다”고 부연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 美타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미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타임은 10일(현지시간) NBC 방송 ‘투데이쇼’를 통해 올해의 인물 후보 10명(단체 포함)을 공

개했다. 타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초청한 이후 카운터파트(김정은 위원장)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